

고전, 즐거운 독서로의 귀환



이것이 얼마나 유치하고 뻔뻔스러운 고백임을 알고 있다. 그러나 고백하자. 애시당초 부끄러움과 유치함, 그리고 뻔뻔함을 동반하지 않은 고백이란 존재하지 않을 터이니.

2004년 올해의 목표 중 하나는 '책 100권의 완독'이다. 이 무슨 어이없는 발상이란 말인가? 명색이 고전古典 교육 전공자로서 모름지기 "글을 읽고 쓰는 것"을 내 삶의 직업으로 삼아야 할 사람이 새삼스럽게 글을 읽는 것을 올해의 목표로 설정한다는 것이 우습지 않은가? 이걸 마치 날마다 1억 원의 돈을 만지는 은행원이 "올해의 목표는 1조 원을 세는 것이다" 따위의 목표를 설정하는 것만큼 실없어 보인다.

그런 줄 알면서도 올해 "네 계획이 무엇이냐?"는 질문을 받으면 어김없이 쭈뼛쭈뼛 그러나 망설임 없이 "책 100권의 완독"을 떠들어대던 나였으니 한 해가 저물어가는 이 즈음이면 정신없이 지내는 하루하루 속에서 낡은 옷장의 묵은 이불 속에 조용히 모셔두었던 올해의 목표를 조심스럽게 펼쳐들고는 목표의 성취 가능성을 재단하지 않을 수 없는 것이다.

요즘이야 책을 직업적으로 읽고 책 그 자체를 평론하는 직업군도 등장하는 상황이니 한 해에 책 100권을 읽는 것쯤이야 별로 내세울 것 없는, 그렇고 그런 계획일 것이며, 매년 1월 1일에 세우는 연중계획 중에 "몇 권의 독서"를 포함하지 않는 사람들 또한 없을 것이니 "책 100권의 완독"이란 사람들 앞에서 마구 떠들어대기에는 왠지 민망하고 유치한 계획일 수밖에 없다. 하물며 그것을 직업으로 삼고 있는 사람에서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글머리에 유치한 연중계획을 내세울 수밖에 없는 것은 '책 100권의 완독'이 내 삶 속으로 걸어 들어온 시시한 사연을 떠올려보고 싶기 때문이다.

어쩐 일인지 내 삶의 유년기 기억 속 희미한 이미지로만 남아 있다면 아주 어렸을 적부터 내 삶의 노년은 뚜렷한 하나의 실루엣으로 떠오르곤 했다. 그것은 '미래에 대한 회상'이라 이름 붙일 만한데, "머리는 하얗게 쉰 초로의 늙은이가 책을 읽고 있는 장면"이 바로 그것이다. "책 읽는 노년", 그 장면 속에는 어떠한 고통도 환희도 포함되어 있지 않았으니 그것이 꿈같은 소리의 '꿈'에 해당하는 이기적 무의식이라는 사실을 깨닫는 데에는 그리 오랜 시일이 필요치 않았다.

꿈같은 소리이니 그 꿈 속의 독서는 당연히 '책읽기의 즐거움'을 전제로 했다. 그러나 '읽고 쓰는 것'을 직업으로 삼기

이 글을 쓴 조희정은 서울대 국어교육과를 졸업하고 동 대학에서 박사학위를 받았다. 서울대, 상명대, 서울시립대 등에서 강의했고 <인텔리전차>(공저), <대담한 책읽기>(공저) 등의 저자이다. 현재 문화기획 퍼슨웹(www.personweb.co.kr) 회원으로 활동중이다.

로 결정한 이후 군내 나는 서적을 뒤적거리며 의무적 독서에 열중해야 했던 나는 '고통스러운 독서'가 존재하며, 모든 글쓰기의 9할은 고통임을 확인해야 했다.

그러다 우연히 한 친구의 권유로 《프레이리의 교사론-기꺼이 가르치려는 이들에게 보내는 편지》를 읽게 되었다. 대학 시절 익숙했던 '프레이리'의 이름을 접하며 새삼 잊고 있던 길을 떠올렸다. 또 다른 친구는 아멜리 노통의 《오후 네 시》라는 소설을 일러주었다. 아마추어적 소설 읽기의 즐거움이 되살아났다. 어느덧 나는 책 속에서 길을 잃고 있었던 것이다.

읽고 싶은 책보다 읽어야만 하는 책 속을 전전하던 나는 책읽기의 즐거움을 회복하고 싶었다. 누구는 골라먹는 재미가 있다고 하지만 나는 마구잡이식 책읽기를 택하기로 했다. 그러니까 내게 '책 100권의 완독'이란 노년을 추억하는 즐거운 독서로의 귀환을 꿈꾸는 발칙한 발악에 가까웠던 것이다.

구차한 사연이 시시콜콜 길었지만 이와 같은 이력을 지닌 나의 마구잡이식 독서는 두 가지 방향을 향할 수밖에 없었다. 전공 관련 독서와 교양 관련 독서. 그러나 이분법적 접근 속에서 경직된 독서와 즐거운 독서는 쉽사리 화해하려 들지 않았다.

그러다 만난 두 권의 책이 《사기 본기》와 《살아있는 우리 신화》이다. 전자는 중국의 대표 고전 중 하나인 《사기》를 평생 연구해 온 연구자가 연구에 입문하는 사람들과 대중을 위해 펴낸 《사기》 입문서로 본기, 표, 열전 등으로 구성된 《사기》 중 〈본기〉를 다루고 있는 책이다. 《사기》를 교양 삼아 읽어본 사람들은 알겠지만 《사기》는 무조건 읽는다고 그 체제나 상세 내용을 짐작할 수 있는 책이 아니다. 방대한 시공간을 다루고 있는 만큼 엄청난 배경 지식을 필요로 하는 텍스트는 자칫 독자에게 지루하게 느껴질 수도 있기 때문이다. 교양으로 읽기에는 너무 거대해 보이고, 그렇다고 전문적 연구서를 읽자니 엄두가 나지 않는 상황일 때 만난 《사기 본기》는 험클어진 실타래를 풀기 위한 하나의 실마리이자 잃어버린 길을 찾아가는 나침반이 되기에 충분했다. 저자가 총5권의 해설서를 구상하고 있다니 이후의 작업 역시 기대하지 않을 수 없다.

후자는 일반 대중에게는 그다지 알려져 있지 않은 한국의 민간 신화를 독자들에게 소개하는 책이다. 제우스, 헤라, 포세이돈에 익숙하고 우리나라의 신이라면 '단군'의 이름을 떠올리는 것으로 죽한 사람들에게 우리의 신神이 되 우리의 신이 아니었던 〈바리공주〉, 〈감은장애기〉, 〈당

금애기〉, 〈대왕별소왕별〉, 〈자청비〉, 〈강림도령〉, 〈오늘이〉 등등을 펼쳐놓은 이 책은 민간 신화에 대한 단순한 소개서 수준을 뛰어넘어 낯선 무속 서사의 텍스트를 다시 쓰고 삽화를 곁들임으로써 대중들의 접근 가능성을 높였을 뿐만 아니라 연구자 개인이 우리 신화에 대해 갖고 있는 경외심과 애정을 넘치지도 모자라지도 않게 드러냄으로써 사람들의 시선이 자연스럽게 우리 신화로 향하도록 만들고 있다.

이렇게 말하면 대중을 겨냥한 가벼운 책인 듯하지만 두 권 모두 한 분야에 매진해 온 저자의 내공과 직면하게 된다는 점에서 만만치 않다. 자신이 아는 내용을 그만큼 쉬운 문체로, 그러나 읽는 이가 전체 그림을 그릴 수 있도록, 그러면서도 감동을 주는 책을 쓴다는 게 어디 쉬운 일이던가? 스스로를 고전 속에 녹여냄으로써 고전과 연구자가 하나 되어 고전을 다시 풀어 쓴 연구자의 모습을 확인하는 일은 군내 나는 고전이 현대 사회로 멋지게 귀환하는 모습을 보여주었다는 점에서 내게 전공과 교양의 유치한 이분법을 초월한 독서의 즐거움을 회상하였다.

나의 노년이 예전에 꿈꾸었던 실루엣으로 실현될지, 혹은 그것과는 전혀 무관한 길에서 헤매게 될지 지금으로서는 알 수 없다. 그러나 난 이제 더 이상 '미래에 대한 회상'을 시도하지 않을 것이다. 책 속이든 현실 속이든 좌충우돌 넘어지고 자빠지는 것이야말로 즐거움의 원천이라 믿기 때문이다. 또한 글을 마무리하면서 올해 목표의 달성 가능성도 밝히지 않았다. 이는 독자들의 궁금증을 유발하기 위한 내 유치한 심리의 발현이기도 하지만 100권 완독의 의미가 반드시 숫자 100에 놓여 있기만 한 것은 아니기 때문이다. 어쨌든 난 2005년에는 좀 다른 계획을 세우기로 결심했다. 그것으로 2004년의 계획은 효과를 본 것이 아닌가 자문하면서. ■

《사기 본기》 사마천 원저 | 이인호 새로 씀 | 사회평론 | 368쪽 | 값 15,000원

《살아있는 우리 신화》 신동훈 지음 | 한겨레신문사 | 336쪽 | 값 13,000원

